

빛바랜 사진 한 장



빛 바랜 옛 사진 속 정비중대 중대장 시절의 고재만 집사. 옆에 선 젊은 중위는 60년대 한국문학의 백미 <광장>의 작가 최인훈이다.

그이는 전라도 담양군 창평면에서 1928년에 태어났다. 올해 우리 나이로 여든 여섯. 조선 시대 문인이자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던 고경명의 십이 대 손이다. 고경명은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의병을 일으켜서, 6천 여 의병을 이끌고 의주로 향하다가 금산에 집결하고 있던 왜군과 접전을 벌여 아들 인후와 함께 전사했다. 5남 3녀중 3남이었던 그이는 아마도 조상의 이런 내력을 들으며 성장했을 터이다.

집안 형편은 좋지 않았다. 공부하고 싶었던 그이는 광주에 가서 신문배달을 하면서 송일 중학교 야간부를 다니다가, 3학년 때 광주 동중학교로 전학을 했다. 몸집은 작았지만 운동을 좋아했다. 기계체조도 했고, 권투도 했다. 교내 권투 대회에서 플라이급 우승을 하기도 했다. 동중학교 5학년 때 6.25 전쟁이 발발했다. 민족의 비극이었던 전쟁의 여파는 곧 광주까지 이르렀다. 그이는 다른 많은 학생들과도 같이 학도병으로 자원했다. 전선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전투 상황에 배치되기도

했지만, 그이는 보급부대에 배치되어 서대전역에서 근무했다. 일본 군대의 영향으로 당시 군대에는 기합이 섰다. 엠원 소총으로 훈련을 받았고, 미군에서 지원한 군복을 줄여서 입었다. 화랑 담배도 나왔고, 비상식량으로 미군용 시 레이션이 지급되기도 했다.

그 사이에 공산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진주했다. 그의 고향도 전쟁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이데올로기의 갈등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피해를 입었고, 인천상륙작전으로 보급선이 끊어진 공산군들이 애꿎은 소를 잡아가지기도 했다. 전쟁이 소강상태에 이르러, 학교로 복귀해서 졸업을 하는 날, 징집영장이 다시 나왔다. 학병으로 근무했던 부

대에 가서 자원입대를 했다. 병 생활은 정말 힘들었다. 무학의 하사관들이 학벌 있는 병사들을 이유 없이 괴롭히기도 했다. 간부후보생 모집에 응해 세 차례의 시험을 거쳐 합격했고, 24주 훈련을 받은 후 보급중대에 배속되었다. 철원 아래 연천에서 근무했다. 밤이면 섬광과 함께 포 소리가 땅을 울렸다. 폐품을 수집해 보수해서 재활용하도록 하는 수집중대 소대장을 지냈고, 전방의 정비중대에서 중대장을 지냈다. 그 시절 부관으로 데리고 있던 장교가 소설가 최인훈이다. 그이는 그 이후 20년 동안 근무하다가 중령으로 전역했다. 그 사이에 2남 2녀를 낳았다. 57년에 태어난 장남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살고 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자식들의 영향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 회사를 다니는 장녀가 정신여고를 나왔던 인연으로 주님의교회에 다닌 지 10년 정도 되었고, 2007년에 세례를 받았다. 아내가 1997년에 심장이 안 좋아 10년 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인생 선고로 받았다. 7년 전에 결국 수술을 받아 몸이 편치 않은 아내가 늘 마음에 걸린다.

지금은 일산에 살면서 지하철로 교회에 온다. 다행히 몸은 아직 건강하다. 다만, 기억력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돌이켜 보면 참 고단한 삶이었으나,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을 느낀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다. 그이는 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깜빡깜빡 기억을 놓치곤 했다. 자칫하면 잃어버릴 그이, 주님의교회 고재만 집사가 기억하는 지나간 역사의 날들에 평화로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이들이 빛지고 있다. 빛 바랜 사진 한 장, 그 시절을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하는 까닭이다.

함글함글

쉽고 재미있는 기독교의 역사 7

중세 수도원 운동의 두 가지 흐름

이집트 사막 한 가운데 수도원을 세우고 오랜 수도생활을 마친 안토니는 305년, 처음으로 자신 영적 지도를 따르는 수도사들의 공동체를 파움(Fayum)에 설립하였다. 기독교 역사에서 수도원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물론 안토니가 305년에 수도원을 설립하기 전에 이미 동방 기독교에는 수도자 집단이 있었다. 오리겐과 터툴리안 시대에 이미 고행과 은둔을 강조하는 수도생활이 있었다. 이러한 초기의 수도원 제도는 이후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자들이 모여 집단생활을 하는 은둔형(The Eremitical Type)과 일정규범에 의한 집단수도원 형태(The Cenobitic Type), 두 가지로 정착되었다. 안토니는 105세까지 사는 장수를 누렸지만, 그의 최후는 은둔 수도사로 평생을 산 사람답게 신비롭게 끝을 맺었다. 그를 마지막까지 돌보았던 두 제자 마르카리우스(Marcarius)와 아마타스(Amathas)에게 비밀유언을 남겼다.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시신을 후미진 곳, 땅속에 매장하라는 것이었다. 비밀에 싸여진 그의 임종사건은 365년 혹은 367년경에 일어났다. 20년간 사막에서의 은둔 수도생활을 마친 다음 305년부터 공식 출발한 안토니 수도원이 동방 기독교의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었다. 이러한 동방 기독교의 수도원 운동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도원을 두루 시찰한 대 바질(Basil the Great)에 의해 확실한 이론적 근간이 마련되었다.

안토니에 의해 시작된 동방 기독교의 수도원 제도는 철저히 금욕주의적 신앙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동방 기독교의 수도원 제도는 세속적인 것(Secular)과



중세 수도원에서 성경을 필사하는 수도사

성스러운 것(Sacred)에 대한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사막의 은둔 수도사들은 육체적인 욕구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악의 근본으로 보며 그들의 고행을 극대화하였다. 이집트 사막 교부들의 초기 수도원 제도에서는 특별히 인간의 본성에 대한 철저한 부정을 했다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도원 제도가 점차 공식화됨에 따라 극단적인 고행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수도사간의 경쟁심도 큰 작용을 하였으리라 추정된다. 그러나 점차 중세 기독교의 신비주의와 결합하면서, 하나님과의 합일(Communion with God)이 강조되었다. 은둔 수도사들 간에 경쟁이 벌어지는 부작용도 뒤따랐다. 누가 더 참혹한 고통을 이기면서 고행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수도사들의 경쟁심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 다른 동방 기독교 수도원 제도의 특징은 집단생활 체제가 아니라 일정지역에 흩어져서 자기 나름대로의 수도방식을 따라 고행의 수련을 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공동체의 규범이 결

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반면 서방 기독교의 수도원 제도는 철저한 집단생활과 엄격한 수도 규범을 따르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서방 기독교 수도원 운동의 초기 발전 시기에 확고한 수도회칙(Rule)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기독교 수도원 운동의 전환점을 이룬 사람이 바로 성 베네딕투스(St. Benedict of Nursia, 480-543)이다. 수도원 운동이 4세기부터 유럽의 기독교인에 의해 발전된 이유에는 당시의 사회 경제적 환경을 빼놓을 수 없다. 과중한 세금의 부과와 강압적인 징집에 억눌려 있던 수많은 중산층의 젊은이들이 특정한 권리와 면제의 혜택이 부여되는 수도원 생활을 자원하게 되었다. 또한 세속 화해가는 교회의 타락에 대한 반작용도 초기 수도원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속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향해 돌아섰던(Returning to God)' 안토니를 위시한 이집트 사막교부들의 모범을 따라, 서방교회에서도 금욕과 은둔을 강조하는 수도원 제도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으로 인해 지중

해 연안과 남부 유럽의 중심도시에서 각종 수도원이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었다. 이들 수도원의 운영을 위한 규범들이 각 수도원의 현실에 맞게 나름대로 채택되었지만, 통일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월의 흐름에 따라 수도원 제도의 타락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를 바로잡은 사람이 서방 기독교 수도원 제도의 창시자, 성 베네딕투스이다. 베네딕투스에 대한 전기적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베네딕투스의 삶과 사상에 대한 고전적인 사료는 대 그레고리(St. Gregory the Great)가 기록한 『대화』(Dialogue)인데, 베네딕투스에 대한 개관적인 전기(Biography)라기보다는 성인 열전(Hagiography)에 가까운 글이다. 안토니를 위시한 이집트 사막교부들의 영향을 받은 동방 기독교 수도원 제도가 은둔형(Eremitical Type)이었다면, 『베네딕투스 수도회칙』에 의해 기초가 놓여진 서방 기독교의 수도원 제도는 집단생활과 철저한 수도 규범의 준수를 요구하는 집단수도원 형태(Cenobitic Type)였다. 이러한 베네딕투스 수도사들의 집단생활을 통하여 초대교회 말기와 중세 시대의 기독교는 그 신학적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다. 사실 중세의 신학은 바로 수도원의 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수도사들의 집단생활과 고대문서의 필사 등의 작업을 통해 유지할 수 있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럽의 수도원 운동은 중세 기독교 역사를 지배하던 교권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역시 수도원 출신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강찬 목사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45회>

■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 ①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으로 만드심
- ② 세상의 시작
- ③ 천지창조를 비롯한 세상과 인간, 민족의 기원을 기술한 冊(책)

■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創(비롯할 창, 상할 창) : “저장시설”을 의미하는 倉(곳집 창)과 “칼, 또는 도구”를 상징하는 刀(刀, 칼 도. 선 칼 도)를 합쳐 <추수한 곡식을 저장

創世記 창세기

Foundation of the world

“太初(태초)에 하나님이 天地(천지)를 創造(창조) 하시니라” (창세기 1:1)

하기 위하여 곳집을 짓는 일은 도구(연장)가 있으므로 비롯된다. 이처럼 도구를 사용하니 다쳐서 몸이 상한다> 라는 문자를 만들었다.

★世(세상 세, 인간 세, 대 세) : “숫자 30”을 나타내는 卅(서른 십)의 변형체이다. 따라서 <30년마다 代(대, a generation, an age)를 이어가는 것이 인간 세상이다> 라는 의미가 되었다.

★記(기록할 기) : “말하다. 분명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言(말씀 언)에 “나. 자기”를 뜻하는 己(몸 기)를 합쳐 <말의 분명한 의미를 남기기 위하여 내가 글로 적어 기록한다> 라는 문자가 되었다.

함줄함줄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자가 되자

미쇼데이 선교 찬양대, 여주 소망 교도소 방문기

2013년 5월 19일 주일 3부 예배를 마친 오후 1시, 미쇼데이 선교찬양대는 올 들어 2번째 사역인 여주 소망 교도소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떠났다. 여주 소망 교도소는 작년에 3번 그리고 이번이 4번째 방문이다.

처음 방문할 때,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악보만 가지고 엄숙히 들어가 많이 긴장된 모습으로 찬양하고, 오히려 내가 더 큰 은혜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간단한 절차를 마친 후 강당에 들어서니 모두다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어서 더 이상 긴장되지 않았다.

잠깐의 실수로 죄를 지어 교도소에 서 복역 중인 공동체 형제들을 보니,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들일텐데... 하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리며 가슴이 아렸다. 소망공동체 교회는 재소자 200여명이 주일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다. 어려운 교도소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미쇼데이 선교 찬양대가 지난 5월 19일 여주 소망교도소를 방문하고 찬양을 올렸다.

택함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가?

총무님의 사회와 대장님의 기도, '생명과 성령의 법안에 있는 자가 되자'라는 김용웅 목사님의 설교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 특별순서로 오늘 출소하는 형제의 특송이 있었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저절로 숙연해

졌고 저 형제가 다시는 이곳에 들어오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선교찬양대는 이날 <승천> 외 5곡을 불렀다. 조화영 자매, 김광훈 형제의 <축복하노라> 듀엣, 이혜정 집사님의 <그리운 금강산>, 박주원 자매의 오보에 연주는 찬양을 더 풍성하고 은혜롭게 소망공동체 형제들의 마

음을 위로해 주었고, 뜨거운 앵콜 요청으로 <시편 23편>, <향수>로 화답하며 다 같이 찬양의 은혜 속에 흠뻑 빠졌다.

영혼을 사랑 하며 위로하는 사역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찬양으로 공동체 형제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예배를 같이 드리니 또 다른 감동의 은혜가 밀려왔다. 이런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있는 미쇼데이 연습 시간이 직장생활로 인하여 피곤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연습하여 건강이 허락 하는 한 열심히 봉사해 볼 생각이다.

주님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음악적 소질도 별로 없는 내게 힘을 주신 지휘자님, 성가대원 덕분에 봉사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린다.

이정희 집사 / 미쇼데이 알토

해외선교소식

브라질에서 보낸 편지

사랑하는 주님의교회성도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와 후원 덕분에 브라질 성 가브리엘에 다 카쇼에이라에 3월 1일 잘 도착했습니다. 이곳 성 가브리엘에 다 카쇼에이라에서 이전에는 접하지 못했던 세상들을 접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현장도 보고 있구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지구의 산소통 아마존 정글과 아마존 강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많은 인디오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곳의 기후는 매일 덥고 습도도 높지만, 우리나라처럼 잠도 못 잘 정도로 찜통더위까지는 아닙니다. 늦은 오후면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땅의 열을 식혀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지금은 주로 사진 정리와 문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오 형제들과 함께 제초작업이나 나무를 해오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숙소는 IBARNE 신학대학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와 물질적 후원 큰 힘이 됨을 이곳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과, 관심과 후원과 기도로 도와주신 많은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건우 청년



청년부 데이트스쿨 오,월,애 2기

청년부 데이트스쿨 프로그램인 오,월,애(吾越愛: 나를 뛰어넘는 사랑) 2기가 지난 5월 19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2주간에 걸쳐 열렸다. 총 다섯 개의 강의로 구성된 이번 오,월,애 2기는 정신실 사모(오우연에 저자)와 이정현 집사(Yong 2080 부대표)를 주강사로 하여 매주 목요일, 금요일(5월 23일~5월 31일)에 진행되었다.

청년들은 크리스천의 연애, 기혼 커플들과의 대화, 연인들의 소통과 공감, 기질을 뛰어넘는 사랑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통해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써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배울 수 있었다.

오,월,애 데이트스쿨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만남과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된 청년들이 세상의 문화가 보여주는 쾌락과 자기만족에 의한 만남이 아닌 하나님을 관계의 중심으로 모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만남을 이루어가길 소망한다.

도미솔 전도사

로댐나무

▶ '로댐나무' 는 일상에서 만난 신앙의 체험과 은혜의 기억을 칼럼 형식의 글로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많은 투고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언젠가부터 마트를 가면 어김없이 듣는 소리이다. 나는 그저 물건을 사러 나온 사람인데 판매원이 사랑한다며 깍듯하게 허리 굽혀 인사까지 하니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그저 황송할 따름이다. 처음 이런 일을 겪었을 땐 마트에서 고객서비스를 제대로 하려고 판매원을 교육을 강화하나 싶었다. 그런데 근자에는 전화를 받으면 알지도 못하는 여자로부터 비슷한 고백을 듣기도 할 만큼 너무 흔한 일이 되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사랑한다는 이들의 힘찬 고백이 불편해졌다. 왜 날 사랑한다는 거지? 날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다른 마트에 간다 해도 저렇게 말해줄까? 그들은 내가 그 곳의 매상을 올려주었을 때나 혹은 그러길 바라는 기대감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거리낌 없이 쏟아낸다. 그들의 사랑은 조건이나 단서가 붙는다. 나의 기분이나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그들의 사랑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은근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껏 알아왔던 사랑의 의미는 어디로 갔을까?

마트에서 들었던 말로만 떠벌리는

번지르르한 사랑 타령이 내 입술에도 굳어진 습관이라는 사실을 기도 중에 맞닥뜨렸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귀를 울리는 소리엔 어떤 진정이나 떨림도 없고 늘 되풀이 되는 한 조각의 일상처럼 건조했다.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가 잘 되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며 사회적으로 안정적일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다. 간절히 바라던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라도 하면 하나님은 더욱 사랑스런 분이 된다. 성공적인 세상살이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상황이 닥치면 혹시나 길을 열어주실까 사랑을 읍소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며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간구해야 함에도 내 관심은 늘 나에게로 향하고 있다. 좁은 문 앞에서 서면 모든 세상 판단을 끌어와 손익을 따져보고 머뭇거리며 핑계를 대는 것이 내 사랑의 방식이고, 보이는 잠깐의 행복을 위해 내 갈급함을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내 사랑의 모습이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과 그 분이 원하시는 것에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 사랑한다면, 적어도 사랑한다 말 한다면...

김주현 집사

사역팀장 인사원칙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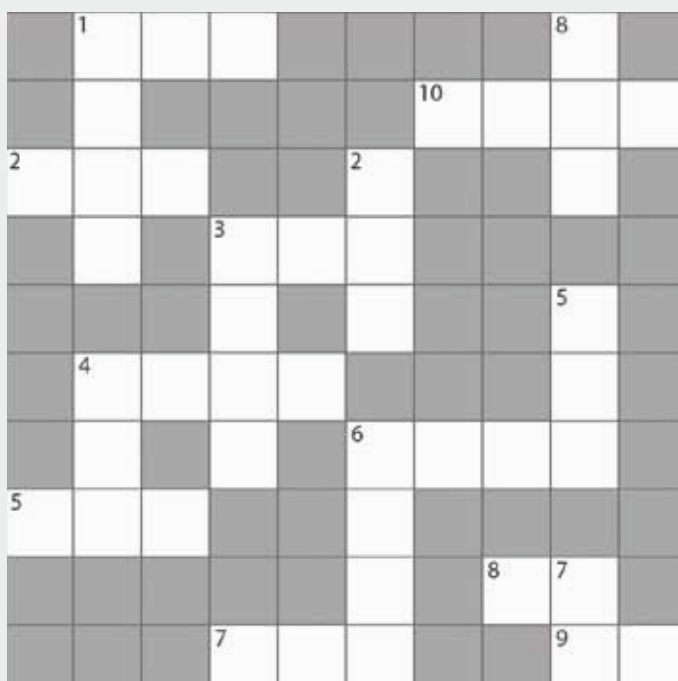
사역조정위원회에서는 그간 여러 형태로 교회 안팎 사역의 현장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역팀장의 인사원칙을 정리하고, 지난 5월 당회에서 이를 결정했다. 사역팀장의 인사원칙으로 이번에 결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함글함글

사역팀장 인사원칙

1. 팀장의 자격: 항존직(피택자 포함)
2. 팀장의 임기: 2년
3. 팀장의 임명: 분과위원장의 추천과 사역조정위원장 확인(인사원칙) 후 당회의 인준을 통해 확정한다. 팀장임명장 부여는 매년 1월 2째주 3부 예배시 임명한다. 단, 다음해 팀장인선은 11월부터 준비할 수 있다.
4. 팀장의 역할
 - 총무와 회계를 함께 두고 사역한다.
 - 팀 예산 내역은 팀원들과 함께 공유한다.
 - 함께 할 팀원을 계발하고 선발한다.
 - 팀원인 경우 1인 2사역 이상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팀장의 의무
 - 팀장은 2개 팀을 맡을 수 없다.
 - 맡은 팀의 사역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 같은 위원회 소속 팀의 사역은 4년 이상 하지 않는다.
 - 인수인계는 문서(화일 및 서류)로 한다.
 - 매년 말 분과위원장의 평가를 받는다.
 - 매년 은사진단과 리더사역카드작성에 참여한다.
 - 리더 계속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6. 팀장인선 시 거부한 경우
 - 분명한 이유가 없을 경우 다음 인사때 반영한다. (항존직 선서내용 참조)
7. 예외를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 사역조정위원회
(위원장: 최상인 서기 장로)

말씀따라 가로세로 - 사무엘상편



가로 1.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인가?

2. 거인 골리앗을 내세워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었던 족속은?
3. 사무엘의 아버지는?
4. 사울이 다윗의 피신을 도운 놈의 제사장들을 죽일 때 그곳에서 피하여 다윗에게 알렸던 사람은?
5. 사무엘의 주도로 온 이스라엘이 모여 금식하고 회개하였던 곳은?
6. 다윗의 청을 거절한 나발을 대신하여 다윗 일행을 맞아 지혜롭게 대처하고 이 후 다윗의 아내가 되는 사람은?
7. 진멸하라하신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탈취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어느 족속과의 싸움인가?
8. ○○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9.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러 갈 때 뿔에 채워 가져간 것은?
10. 다윗을 잡으려간 전령들과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 예언을 하던 곳은?

세로 1. 다윗의 출신 동네는?

2. 기름부음 받기 전 사울이 아버지의 명으로 찾아 나선 동물은?
3. 블레셋에서 돌아온 언약궤를 기랴아림으로 옮겼을 때 궤를 지키는 거룩한 일을 담당했던 사람은?
4.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들어온 다윗에게 한 성읍을 내주어 살게한 사람은?
5.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맞아 얼마간 대치하고 있었나?
6. 굶주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 진설병을 주었던 제사장은?
7.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은?
8. 사울의 아들로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한 사람은?

지나호 정답 - 가로 1.웃니엘 2.미스바 3.기묘자 4.시므온 5.엘리멜렉 6.보아스 7.오벧 8.블레셋 9.유다
- 세로 1.브엘세바 2.미디안 3.기드온 4.야엘 5.아비멜렉 6.나오미 7.베들레헴 8.입다

교회의 ‘오늘’을 지키는 숨은 일꾼들

주님의교회는 하나의 유기체적인 공동체이다. 마치 인간과 같아서, 머릿속에서는 형이상학적인 깊은 사유나 꿈꾸는 듯 비현실적인 몽상을 할 수도 있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눈은 먹을 것을 찾고, 손은 그것을 잡아 입에 넣는다.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먹고 자고 배설하는 생물학적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의 몸 속에는 생각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수의근과, 생각하지 않아도 움직여서 삶을 유지하게 해 주는 불수의근이 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않아도 건강한 삶의 기본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은 말하자면 불수의근일 터이다. 주님의교회에도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묵묵히 교회의 일상을 유지해주는 분들이 있다. 사무국 직원들이 그이들이다.

환경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실



사무국에는 교회 안팎의 환경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실, 기관실, 방송과 멀티미디어, 디자인을 맡는 방송디자인실, 목양실과 교역자실, 일반행정과 회계를 담당하는 사무실에서 여러 직원들이 살림을 맡고 있다. 교회 안팎의 환경을 관리하는 시설관리팀에는 현재 남집사 한 분과 여집사 세 분이 일하고 있다.

“교회뿐 아니라 학교와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쉴 틈이 없습니다. 특히 토요일과 주일이 가장 바쁘지요. 대예배당, 중예배당, 소예배실 뿐 아니라, 1, 2층, 지하의 많은 방들, 사무실들을 내내 관리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회의실 등에서 이런 저런 회의를 마친 후, 책걸상과 집기 등을 제 자리에 복원시키는 ‘사소한 성실’이라도 이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터이다.

3일에 한번 24시간 근무, 기관실



기관실에서는 보일러와 전기 등의 기계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세 집사가 있다. 기계, 영선, 전기가 각각 그들의 영역이지만, 거의 공동으로 건물의 보수를 담당한다.

기능의 필요 때문에 24시간 감시가 필요하므로, 3일에 한번씩 돌아가며 당직을 선다. 즉 3일에 한

번은 24시간을 일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 건물이 크다보니 크고 작은 방이 120여개에 이른다. 이 모든 방들의 열쇠 관리에서 시작해서 난방, 냉방, 전등, 비품 등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가끔은 정신이상자나 노숙자가 들어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한번은 삼십대 중반의 여자가 4층까지 올라가 유리창을 여러 장 깨는 일이 있었습니다. 약간 정신 질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여자의 행동을 제압하느라 몸을 붙잡았더니 나중에 폭행과 추행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갔더라고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토요일 예식 때 남자 노숙자들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일도 자주 있는 일이다.

방송디자인실



교회의 음향과 영상, 전산, 디자인을 담당하는 팀이 방송디자인팀이다.

예배시간에 음향을 감독하며, 장비를 관리하는 음향 간사 두 명과 각 방마다 들어 있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뿐 아니라, 교회 홈페이지와 서버를 관리하는 전산 간사. 또한 예배 장면을 촬영하고, 교회 행사 및 홍보에 필요한 광고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간사. 그리고 함줄함울, 포스터, 플랭카드 등 교회 홍보에 필요한 디자인을 담당하는 디자인 간사가 있다.

이렇게 음향, 영상, 전산, 디자인분야의 전문가인 다섯 명의 간사가 담당한다.

또한 이 팀에서는 정신학원에서 진행하는 여러 채플에 대해서도 기술 지원을 한다. 최근에 영상과 음향 장비를 교체하는 큰 일을 치루었는데, 요즘은 교회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야근을 불사하는 중이다.

목양실과 교역자실

목양실과 교역자실에서는 교역자와 성도들간의 소통을 돕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간사 두 명이 있다. 사실 교인들이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간사들이다. 교역자와 관련된 일들 뿐 아니라, 향촌식 선거, 요람이나 후보, 겨자씨, 장례, 예식, 교패와 주차증 발급, 교인 확인 등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교구별 교역자 사역의 보조, 교인의 각종 증명서 발급, 여전도회 관련 행정 업무, 악보의 복사 등 무엇이든 한계를 지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담당한다. “교구 관리 등 교역자들도 바쁘시다 보니, 이런 저런 서류작업들을 많이 도와드리게 됩니다. 한편 성도님들도 회계나 세무 관련 외의 일들은 저희에게 맡겨주시니 이도 처리해드려야 하지요.” 때로 여러 일들이 겹쳐 성도들을 더 마음 편하게 모시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기도 한다.

교회행정의 출발, 1층 사무실



1층 사무실에는 사무장 함상주 집사와 회계, 세무,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두 명의 간사가 일하고 있다. 주일의 사무실은 항상 요란하다.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들, 복사를 하는 분들, 사역 예산을 신청하는 분들, 회계 보고서를 제출하는 분들로 늘 시끌벅적하다. 그 가운데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밝게 교인들을 맞는 분들이 바로 이 간사들이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민감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분들과 의논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교회 행정의 얼굴 역할을 하면서, 처음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사무실로 안내를 해 주는 일도 이분들의 몫이다.

이 17명의 숨은 일꾼들이, 교회의 ‘오늘’을 말없이 지키고 있기에, 주님의교회는 오늘, 지극히 평화롭다.

부르심의 길에 서서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6수 전문 전도사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 신학과에 첫 발을 내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외고출신이었지만 꿈을 포기한 채 단순히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토목공학과를 진학해 성실히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이 가득했습니다. 돌아보니 그 헛헛함이란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타적인 삶에 대한 막연한 갈증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군 입대를 하고 전역을 하기까지 계속되었는데,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신학의 길로 인도 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추운 겨울 동안 찬바람을 맞아가며 막노동판에서 일하여 번 돈을 가지고 재수 종합학원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6수생의 삶이 시작이 되었고 1998년말 장신대 신학과에 합격하

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집안의 반대로 등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아 등록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 당시 이문동교회 담임목사님(정영택 목사님)의 후원으로 장로회 신학교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신학의 길은 멀고도 험하였습니다. 집안의 도움 없이 혼자 학비와 생활비 벌다보니 공부와 휴학을 병행해야했습니다. 3학년 때 결혼을 하면서 처와 자식을 건사하며 공부를 하다 보니 6년 만에 신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기 위한 6수생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5년 동안 신학대학원 시험에 떨어지며 “이 길을 가야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거듭, 거듭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신학대학원 시험을 계속 떨어지면

서 너무나 낙담하여 전도사직을 사임하고 그냥 평신도로 안식하려는 마음으로 찾은 교회가 분당 샘물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고배형규 목사님과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배 목사님은 그해 7월에 아프간에서 순교하시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의 장례식을 치르며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 “믿음으로 승리 하세요”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주님께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배형규 목사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단12:3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김성일 전도사

피택자 수련회 마쳐



2013년 주님의교회 피택자 수련회가 6월 6일(목)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잠실교회 수양관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주제로 열렸다. 수련회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명으로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16번의 피택자 교육을 통

해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를 바라며 기도를 하며 교육을 마쳤다. 교육을 마친 피택자는 6월 23일 25주년 창립 주일에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로 임직을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함줄함줄**

상담코너

신앙이 약한 남편이 예배 중에 잠을 잘 잡니다.
화를 내자니 서로 싸울 것 같고 가만히 두자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네요. 예배는 드리지 않고 가족들을 데려다주고 돌아가는 남편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남편과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남편이 비록 예배시간에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렇게 힘들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배는 예배시간만 예배라고 보기 힘듭니다.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함께 집을 떠나 교회로 가는 순간부터가 모두 예배를 드리는 모습중 한 부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

정한 것이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예배시간의 졸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남편에게 말로 충고하기 보다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천천히 예배시간이 귀하다는 영적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남편이 조는 것으로 인해 본인이 예배에 진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더욱 더 예배시간에 집중하며 나아가길 기를 바랍니다. **함줄함줄**